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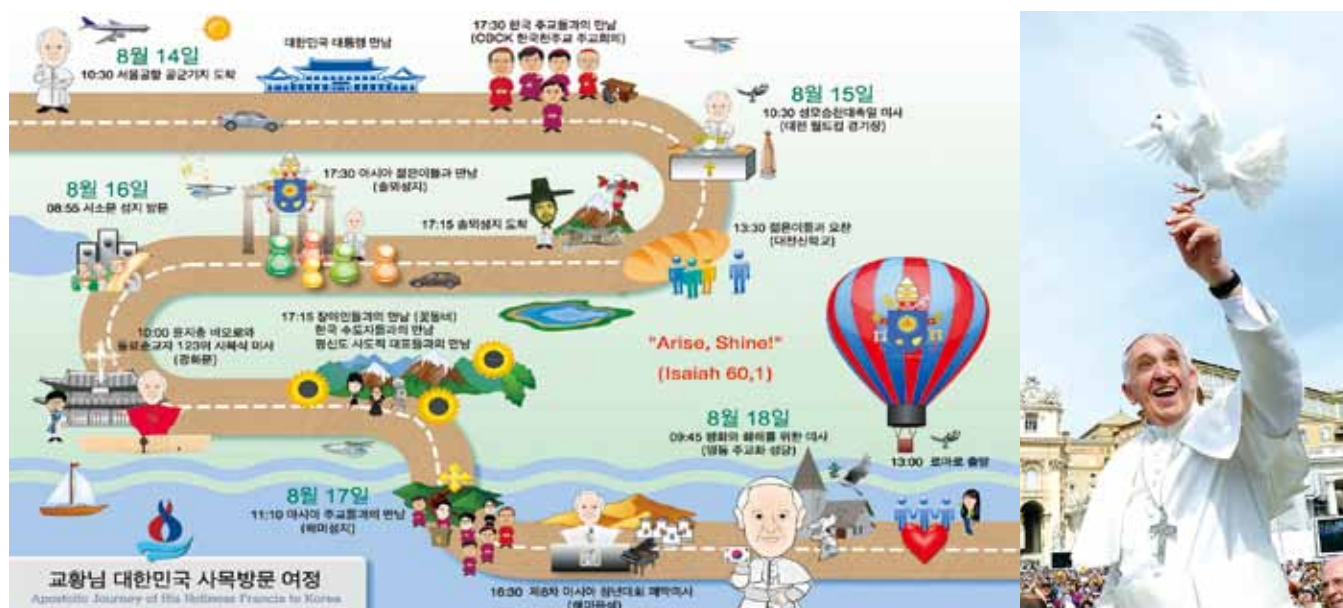
EXPERT
KNOW-HOW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서 보낸 4박 5일

+ 윤기범 KBS 중계기술국 차장

25년 만에 이뤄진 교황의 한국 방문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이자 최초의 예수회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2014년 한국 방문은 ‘프란치스코 신드롬’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낼 정도로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었다. 주관방송사로 선정된 KBS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전 방한 일정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완벽한 주관방송사 역할 수행

KBS는 주관방송사의 가장 핵심 업무인 국제신호 제작과 송출을 위해 750명의 제작진과 HDTV 중계차 17대, 헬기 1대, 700여 대의 첨단 방송장비를 동원하였으며, 미디어센터의 설계와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KBS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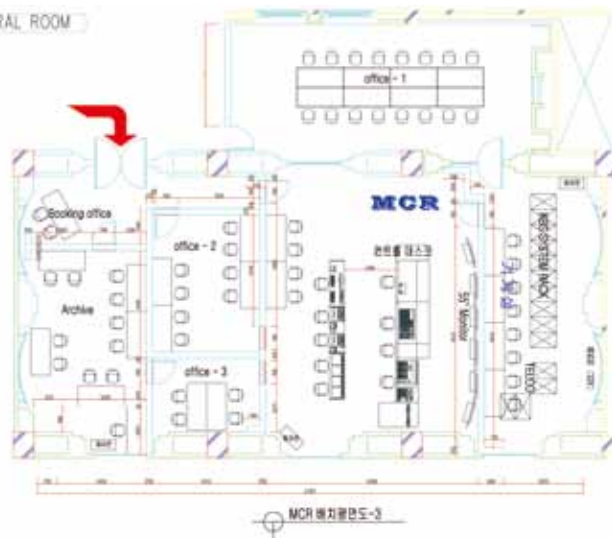
국제신호 제작과 Broadcast Partner의 방송업무 지원을 위해 소공동 롯데호텔에 약 3,500m²의 IBC 방송센터를 만들어 전반적인 방송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했다. 2층에는 전 세계 취재진이 상주하는 MPC(Main Press Center)와 국제신호가 만들어지고, 전송되는 MCR(Main Control Room)이 위치했고, 3층에는 사전 등록을 통해 13개 방송사의 부스가 설치되었다.



KBS MC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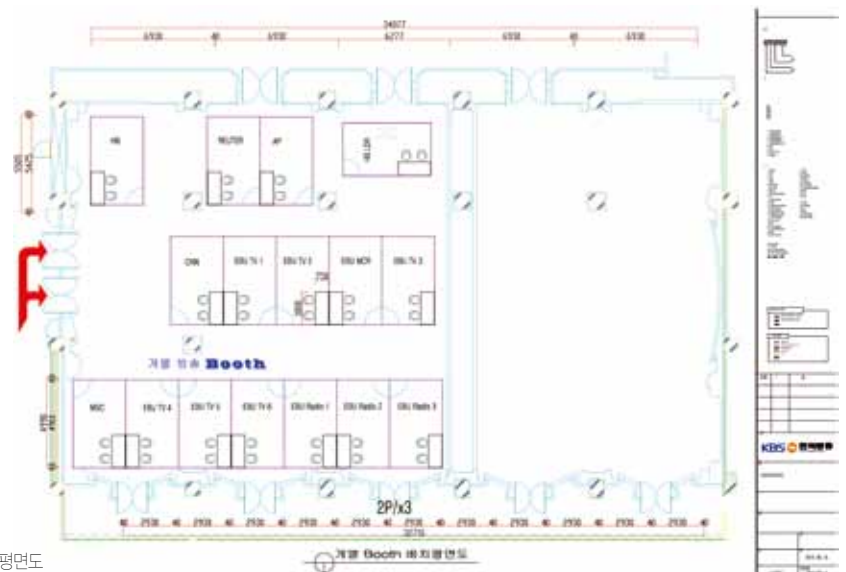
가장 핵심 시설인 MCR은 주관방송사(HB)에서 제작한 국제신호가 최종 취합, 제작, 송출되는 공간으로 각 행사장의 중계차에서 만들어진 모든 Incoming 신호를 취합해 종합 국제신호로 제작하여 outgoing 신호로 분배하는 곳이다. KBS 중계기술국이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주관방송사 운영의 모든 노하우가 집약된 시설이기도 하다. MPC(Main Press Center)는 전 세계 기자들이 상주하며 교황의 4박 5일 일정과 아침저녁으로 교황의 동선 및 행사에 대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브리핑을 들 수 있는 곳이다. KBS는 MPC 내에 개별 방송사들이 별도의 방송장비 없이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Stand-Up 공간 2곳을 조성해 운영했다.

EMERAL ROOM



롯데호텔 2층 MCR 배치평면도

롯데호텔 3층 개별 방송사 부스 평면도



[illegible]

광화문 124위 시복미사

KBS는 광화문에서 7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봉헌된 <124위 시복미사>를 약 2시간 동안 생중계 하였다.

시복미사는 천주교 전례 순서에 따라 2시간가량 봉헌됐으며 중계차 4대와 헬기 1대를 동원하여 교황의 오픈카 이동 동선과 1.5km에 이르는 전체 행사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국제신호로 제작하여 전 세계에 제공하였다. CNN, BBC, AP, Reuter 등 주요 해외 언론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넷째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순교자 124위 시복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교황 환영 열기를 전했다. 그동안 다양한 국제행사와 주관방송을 통해 축적된 KBS의 수준 높은 국제신호 제작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인사(VIP)를 위한 주관방송사 운영은 일찍이 그 사례가 없었다. 더군다나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대규모 미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등의 행사 규모에 비해 준비기간이 2달 정도로 매우 짧아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KBS는 교황의 한국 방문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국제신호를 제공하였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준비에 필요한 사전정보와 충분한 업무지원이 부족한 악조건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현장 스텝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